



홍대 앞 카페 연극 <문학을 들려주다>

눈과 귀로 느끼는 소설, '연극'으로 변신한 문학

소설을 원작으로 한 색다른 연극이 올려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연극 시리즈 <문학을 들려주다>는 국내외 작가 7편의 단편소설과 시를 연극으로 각색, 텍스트로 접했던 문학세계를 눈과 귀로 느끼게 한 독특한 공연이다. 대중과 만나는 장소도 특별하다. 연극의 필수요소인 무대는 극장이라는 상징적 공간이 아닌 누구나 찾는 평범한 카페에 마련했다. 총 4개월간 매주 목요일마다 홍대 앞 카페 <이리>와 <팩토리> 두 곳에서 열리는 이번 연극시리즈는 소설을 쓴 작가가 직접, 또는 전문배우가 소설의 원문을 그대로를 읽어 내려갔던 '낭독연극' 류의 기존 사례들과 차별을 시도한다.

3월 둘째 주 목요일, 카페 <팩토리>를 찾았다. 입구에 들어서니 티켓 판매대가 보인다. 평소와 달리 공연이 있는 목요일에는 입장객 누구나 티켓을 사야한다. 가격은 1만 2천 원. 음료가 포함된 가격이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 골라 앉아 음료수를 마실 때까지는 어느 카페와 다르지 않다. 정각 8시. 공연시작을 알리는 극장의 시그널 대신 기획관계자가 등장해 연극내용을 설명한다. 한 회에 두 편의 작품이 올려진다. 각각 50분의 러닝타임. 10분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약 2시간이다.

공연장이 된 카페에는 '무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연인과 친구끼리 자유롭게 자리한 사람들 사이로 어느새 배우 두 명이 등장하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대사를 읊는다. 상대배우와 대화체의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소설체의 대사를 ' 읊는다.' 하지만 예상만큼 어색하지 않다.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귀에 감기는 맛이 색다르다. 배우들 역시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때때로 작은 몸짓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설 내의 1인칭 시점이 연상될 만큼 각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공연장을 찾은 작가 은희경(왼쪽에서 세 번째) 씨와 배우들.

3월 한 달간 공연되는 작품은 은희경의 소설 〈빈처〉와 정미경의 〈말칸의 장미를 네게 주었네〉 두 편. 각각 ‘아내의 일기장’ ‘새장 속의 나비’라는 제목으로 극화됐다. 공연이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원작 소설을 뒤적이기도 하고, 일행과 연극 감상을 나누기도 한다. 마침 이날은 첫 번째 공연이었던 ‘아내의 일기장’의 원작소설 〈빈처〉의 작가 은희경 씨가 참석했다. 작가는 공연을 본 소감에 대해 “작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에 연극이 효과적으로 보인다”면서 “소설과는 달리 내 작품이라기보다는 연출과 배우의 몫이 더 커졌기 때문에 주체적 해석이 엇보이면서 다른 작품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재미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연극화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도 텍스트의 변신이 신선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소설을 읽는 것인데 ‘연극’이라는 형식이 잠재독자와 작품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극 〈아내의 일기장〉의 원작소설 〈빈처〉의 작가 은희경 씨가 관객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극을 본 관객들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다. 작품을 본 20대 한 여성 관객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잘 몰랐던 작가의 작품을 접하게 됐고 책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 동료와 함께 찾았다는 또 다른 관객은 “책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 하나로 연극을 택한 것이 좋아 보인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티켓도 적용돼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다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그러나 연극 자체에 큰 기대를 걸었던 관객에게는 눈에 띄는 결점들도 많았다. 우선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연극’이라는 초기 컨셉과 달리 공연 중간에는 컵 부딪치는 작은 소리에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관객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무대가 없으니 카페 내 구석진 자리에 앉은 이들은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한 관객은 “배우들의 움직임과 연기가 부자연스러워 조금 실망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에 연출을 맡은 프로젝트 이리의 상임연출가 이범 씨는 이번 무대를 ‘실험’하기 위해 배우들과 원작 텍스트를 수없이 읽어 가면 연구했다고 말하면서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이 이 시간의 감상으로 끝내지 않고 소설작품을 직접 구해서 읽도록 하는 것이 희망”이라며 기획의 취지를 강조했다.

주최 측의 의도만을 생각할 때 이번 공연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문학계에 드리워졌던 불황의 그늘이 새로운 연극이라는 새로운 소통경로를 통해 대중과 만나고 나아가 더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했다는 평가뿐 아니라 문화라는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매체간의 교류가 새로운 창작물을 생산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한지은**